

 외교부		<h1>보도자료</h1>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91-904	
배포일시	2021.11.11.(목)	담당부서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담당자	김일훈 / 군축비확산담당관 (02-2100-7247)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개최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공동 주재 -

- 외교부가 유엔 군축실(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가 11.11.(목) 서울에서 전면 대면회의로 개최되어, 11.11.(목)-12.(금)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과 이 회의 2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공동 주최 측인 유엔 군축실의 이즈미 나카미츠(Izumi Nakamitsu)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도 방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마울랭 판 딜런(Marjolijn Van Deelen) 유럽연합(EU) 군축 특별대표, 로빈 가이스 (Robin Geiss)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올해 제20차 회의는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 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를 주제로 개최된다.

-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전통적인 도전 요인과 더불어 극초음속미사일, 자율살상무기 등 신무기의 도래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차세대 군비통제체제 수립 방향 및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 본 세션 진행에 앞서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과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그간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해 온 국제 군축·비확산체제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다양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서, 특히 2018년부터는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Disarmament Agenda)’를 논의하는 주요 군축 문제 논의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 한편,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11.11.(목)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 대표와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한-유엔 간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축·비확산 규범 형성 주도국으로서 국제 사회 논의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